



한국 가계 부문의 장기추세와 팬데믹

2020. 9. 16.

자본시장연구원
노산하 연구위원

목 차

1

한국 가계부문의 장기 추세

2

팬데믹과 가계: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

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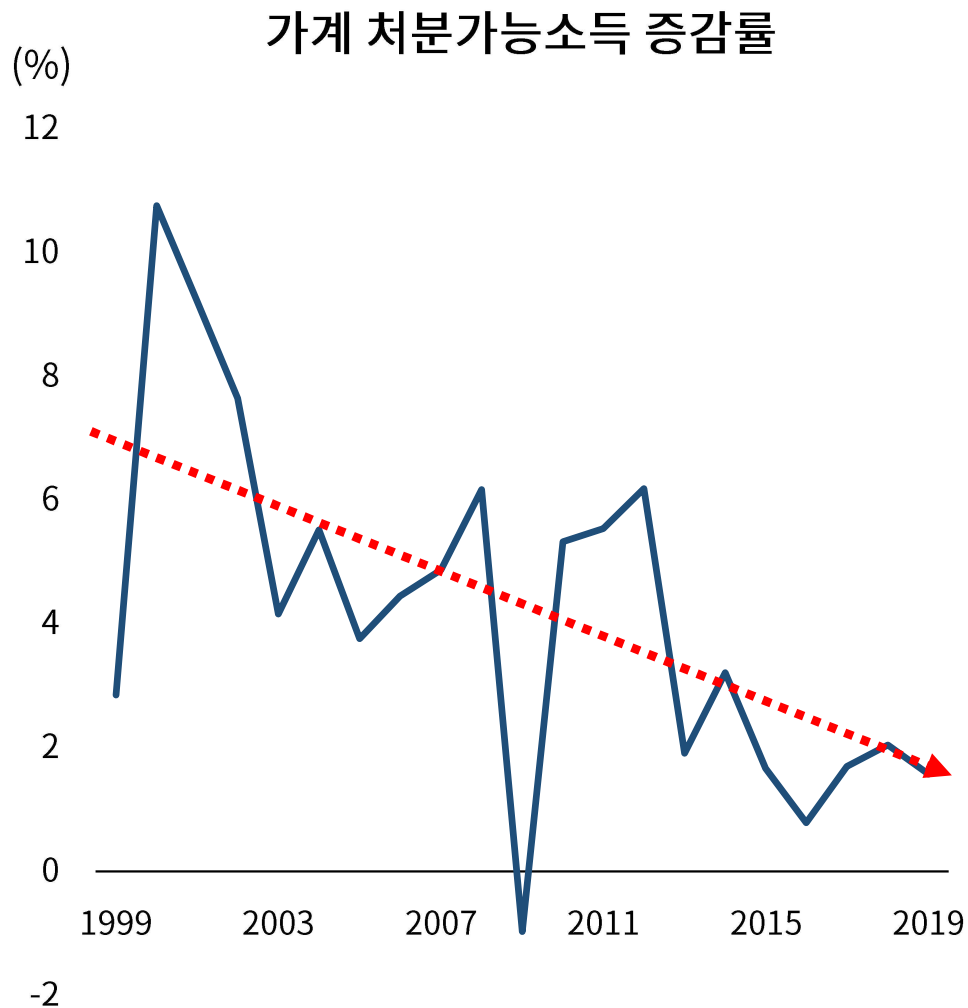
요약 및 맺음말

1. 한국 가계부분의 장기 추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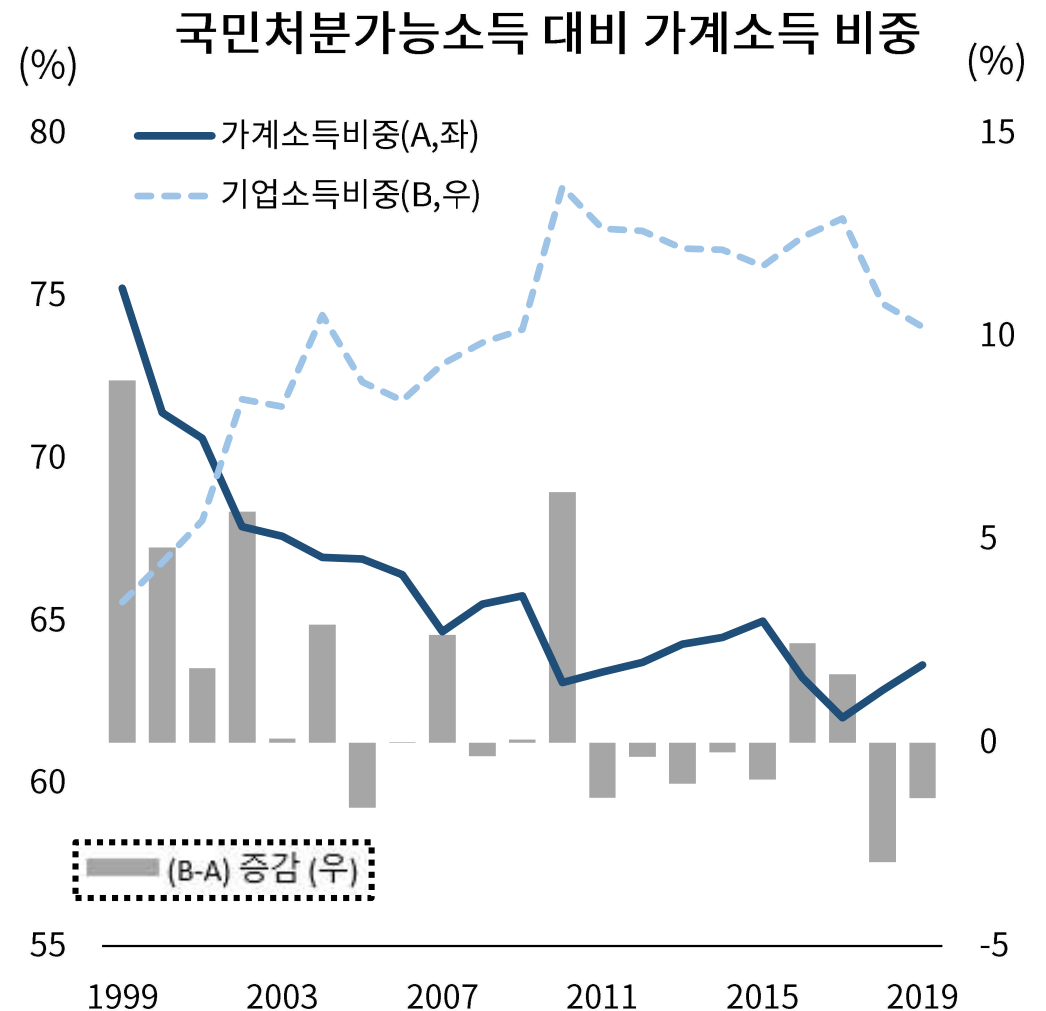
1. 가계소득 증가율 둔화

가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의 추세 하락

국민처분가능 소득 대비 가계소득비중 하락 추세



자료: 통계청(가계동향조사,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(도시, 2인 이상)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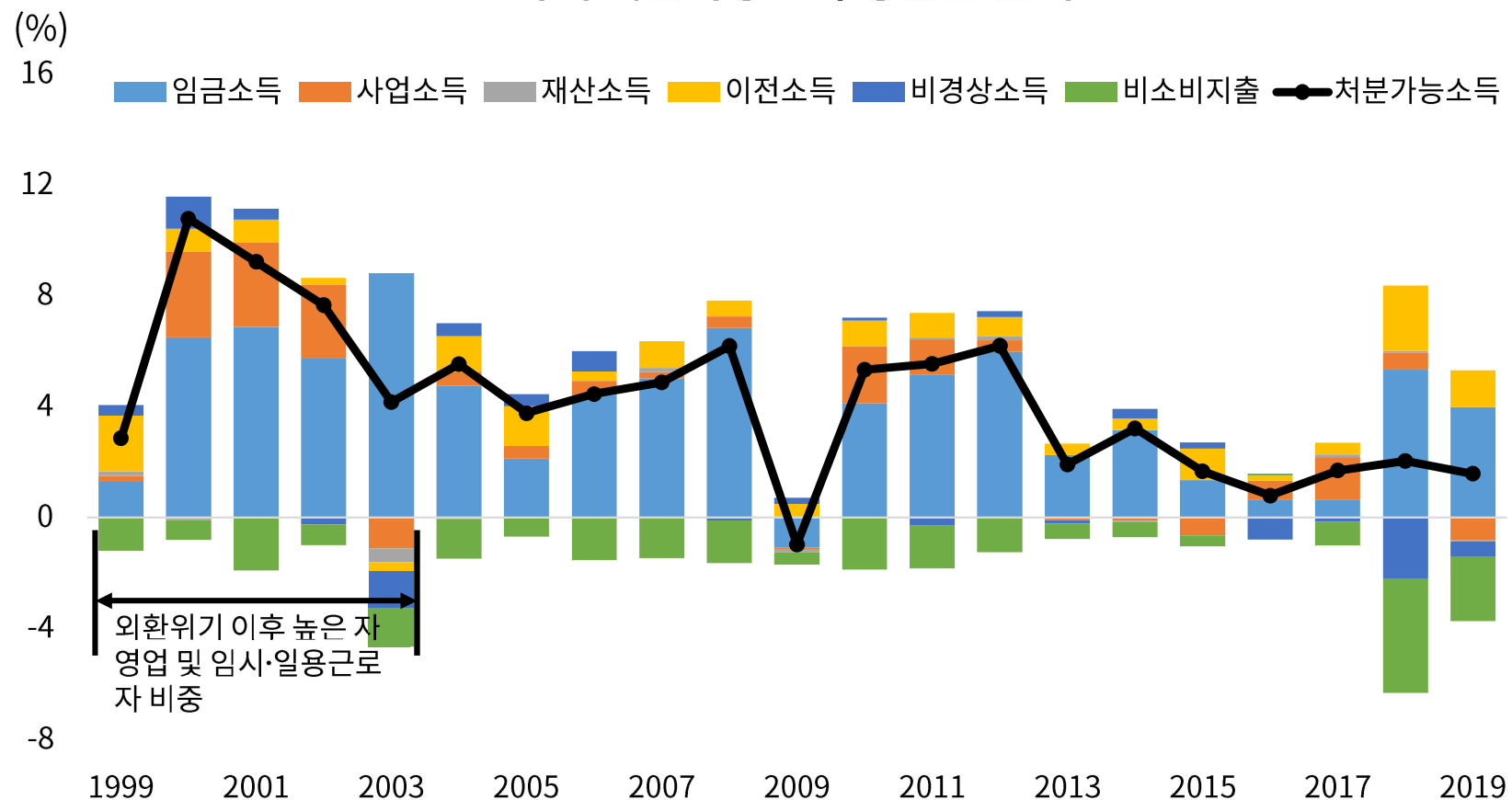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 ECOS

임금소득 증가세 둔화

○ 임금소득 증가세 둔화는 가계 처분가능소득 추세 둔화 주도

› 외환위기 이후 높은 자영업 및 임시·일용근로자 비중 증가

가계 처분가능소득 증감률 분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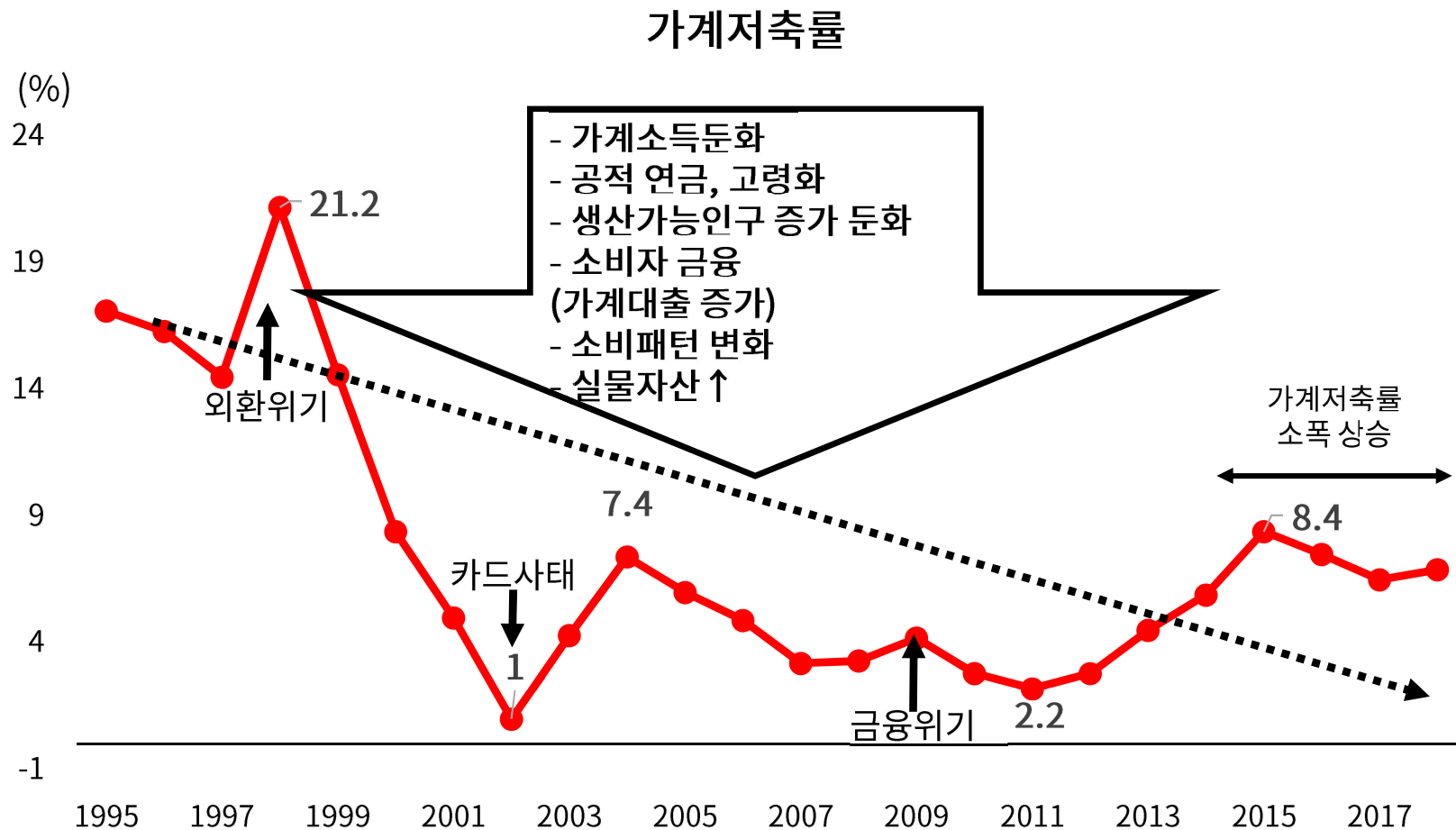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통계청(가계동향조사,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(도시, 2인 이상))

2. 외환위기 이후 가계저축률의 추세적 하락

가계저축률의 하락은 금융시장 성장에 부정적 영향

가계저축률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서 최근 회복세를 나타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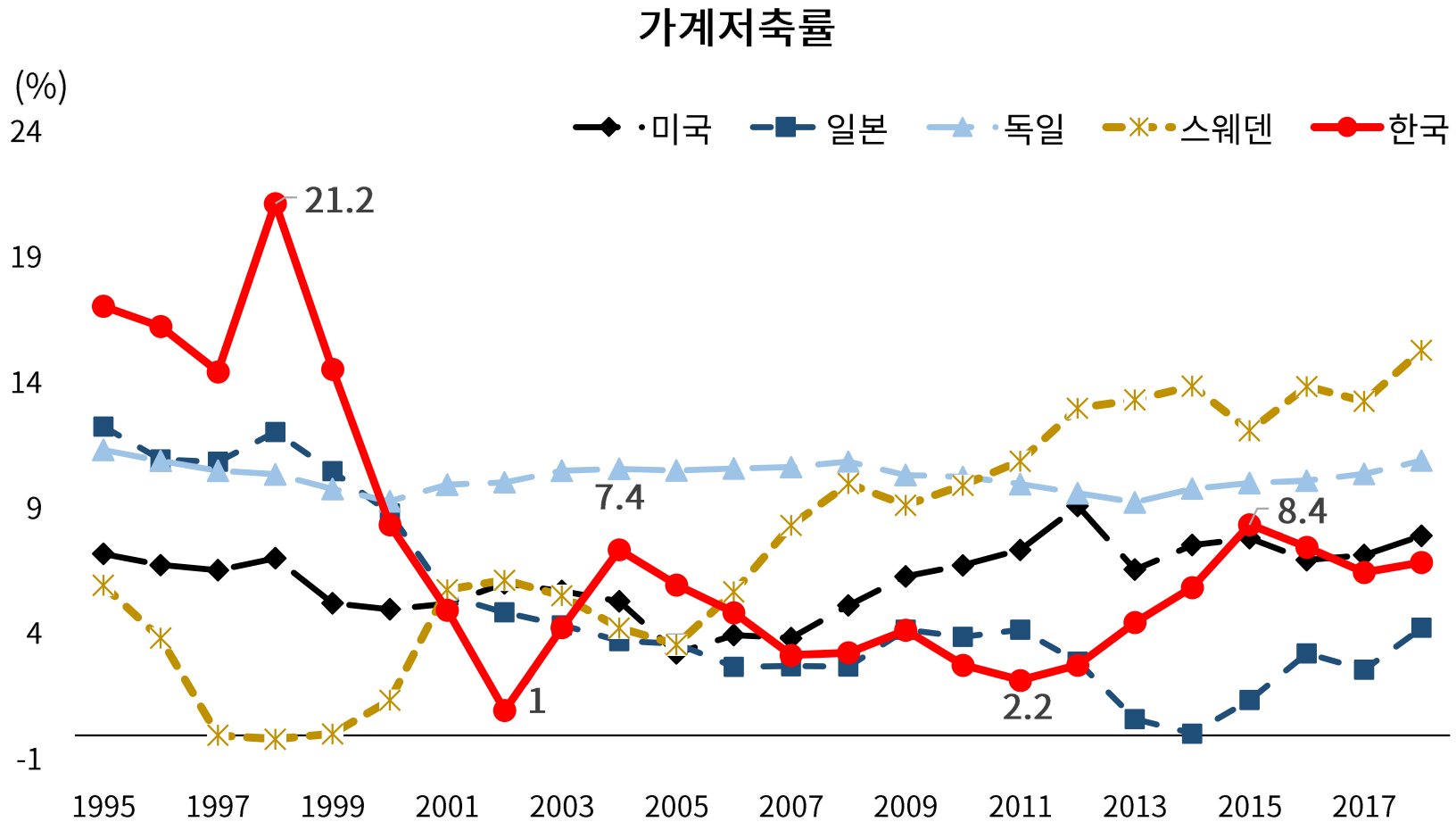


주 : 가계저축률은 소비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가계 지출인 비소비지출을 차감한 처분가능소득 가운데 소비지출에 쓰고 남은 돈의 비율, 자료: OECD

(1) 국내 가계저축률의 급격한 변동

○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국내 가계저축률 급격한 하락

› 가계저축률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는 일본과 유사한 형태, 최근 회복 추세는 세계적인 흐름 반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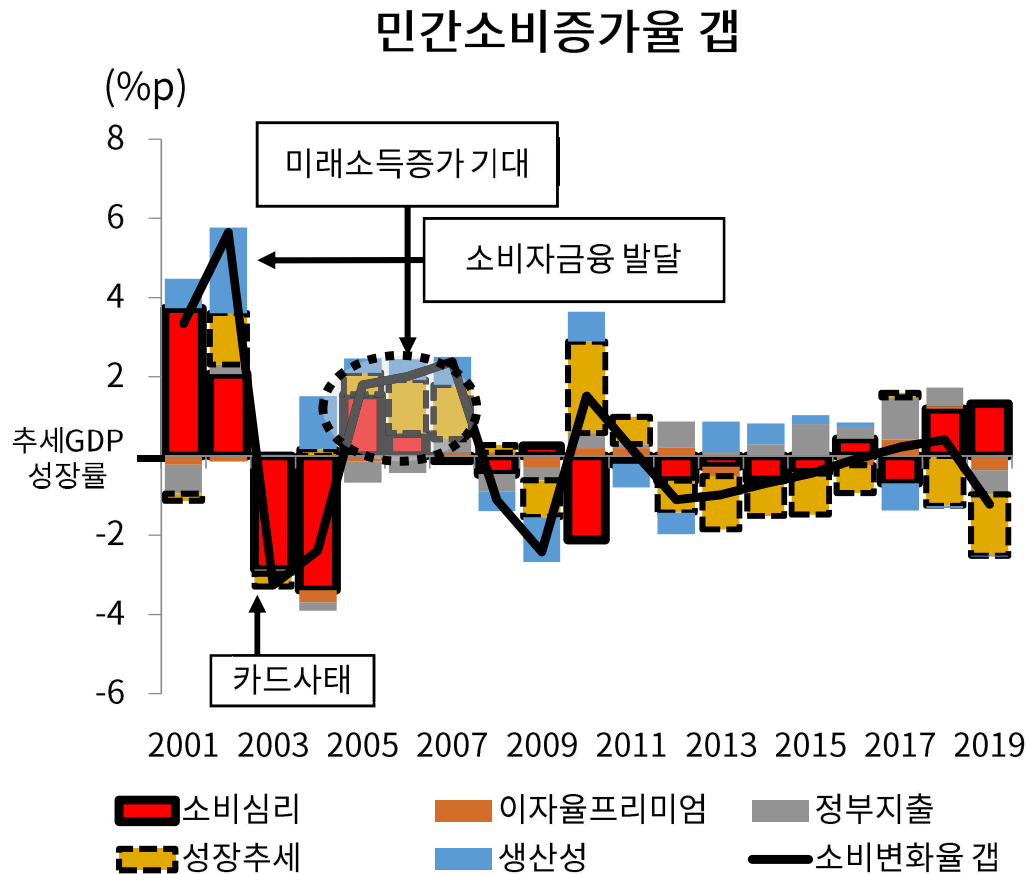


주 : 가계저축률은 소비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가계 지출인 비소비지출을 차감한 처분가능소득 가운데 소비지출에 쓰고 남은 돈의 비율, 자료: OECD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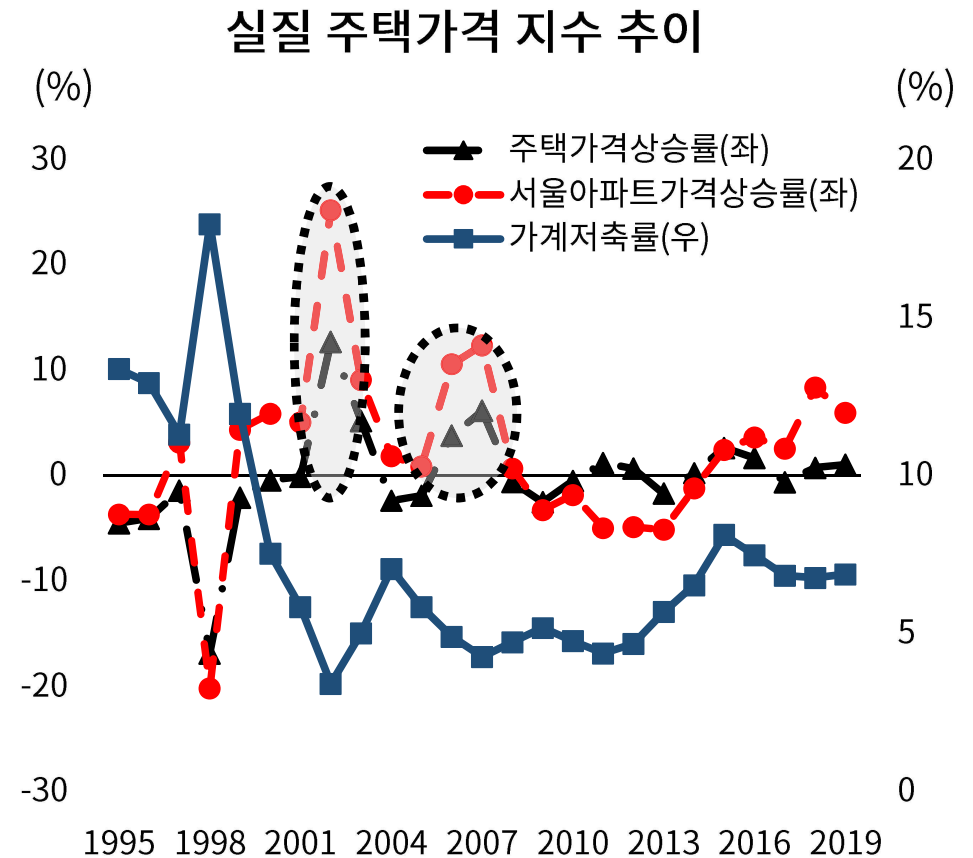
(2) 외환위기 이후 저축률 하락 요인

○ 민간소비증가와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

- 외환위기 이후, 소비자금융 발달 및 미래소득 증가에 대한 기대는 저축률 하락에 영향
-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로 인해 저축동기 약화



주 : Garcia-Cicco et. al.(2010) 모형을 추정 후 역사적 분해
 자료: 한국은행 ECOS(GDP, 민간소비, 투자, 경상수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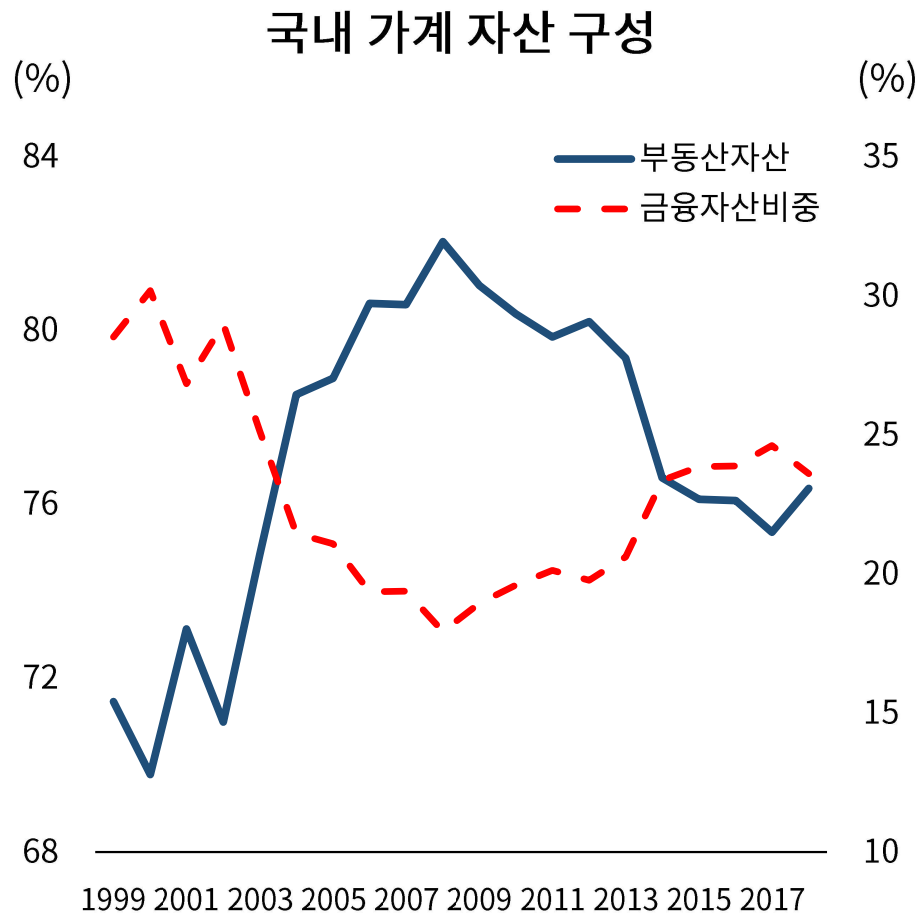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한국은행 ECO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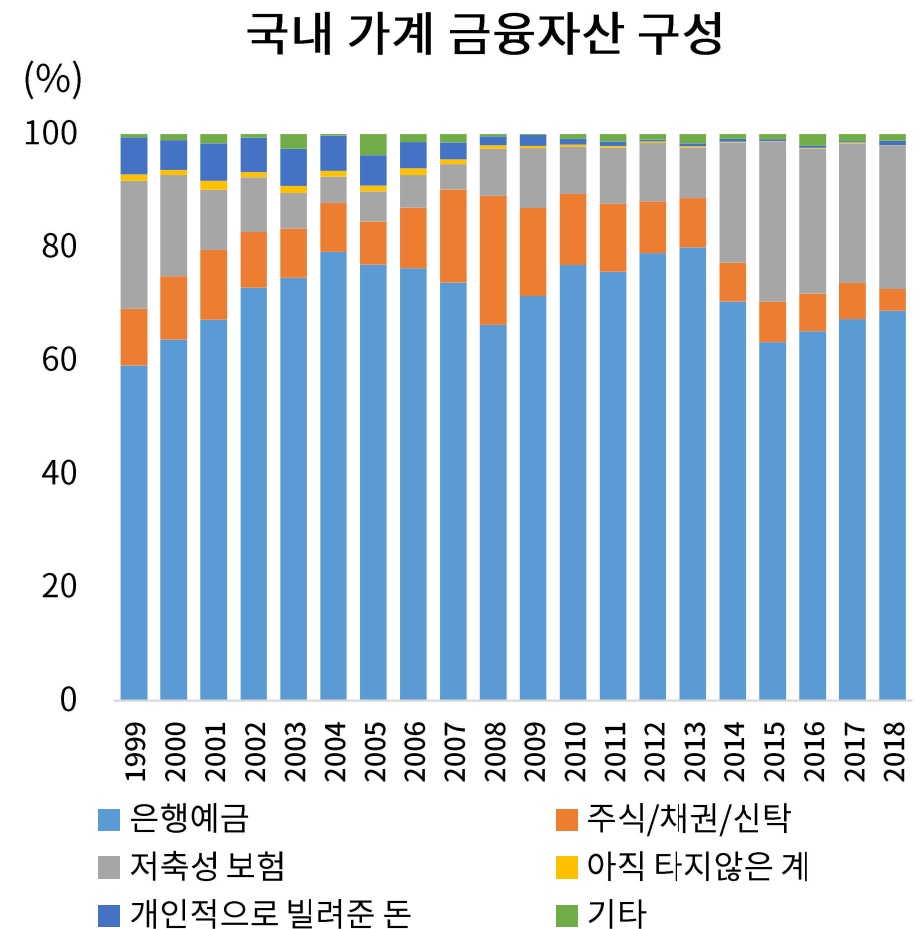
3. 가계의 부동산자산과 안전자산 선호

○ 국내 가계자산은 부동산자산과 안전자산에 편중

- ›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자산 비중은 감소 추세
- › 금융자산은 은행예금의 비중이 높고, 최근 저축성보험 비중 증가



자료: 노동패널조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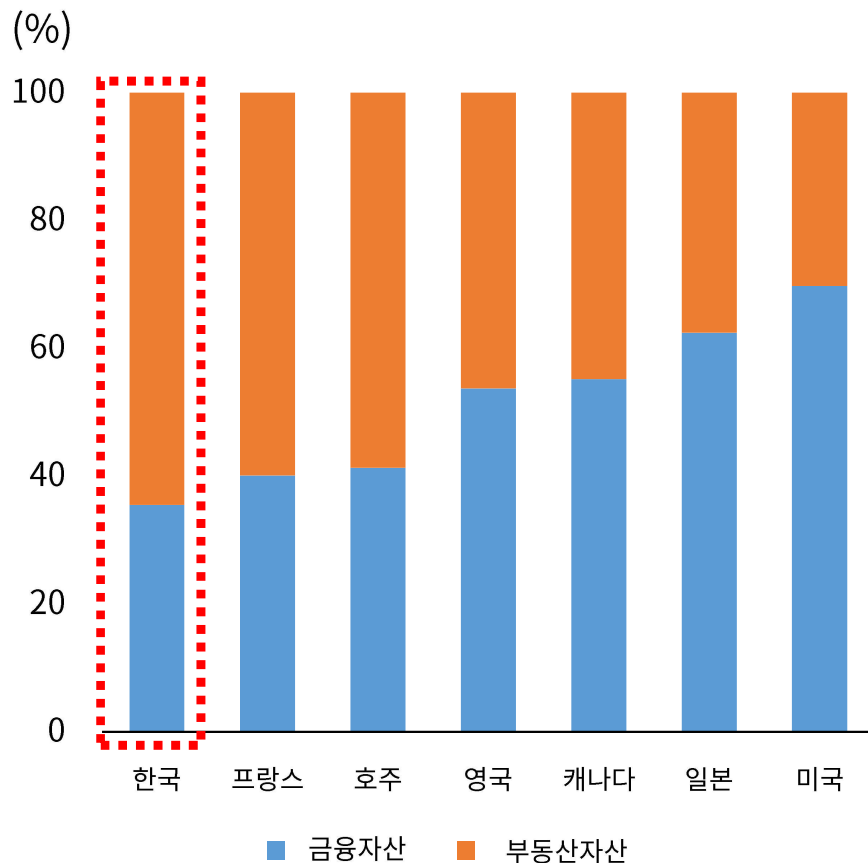
자료: 노동패널조사

(1)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부동산자산 비중

○ 국내 가계자산은 부동산자산에 편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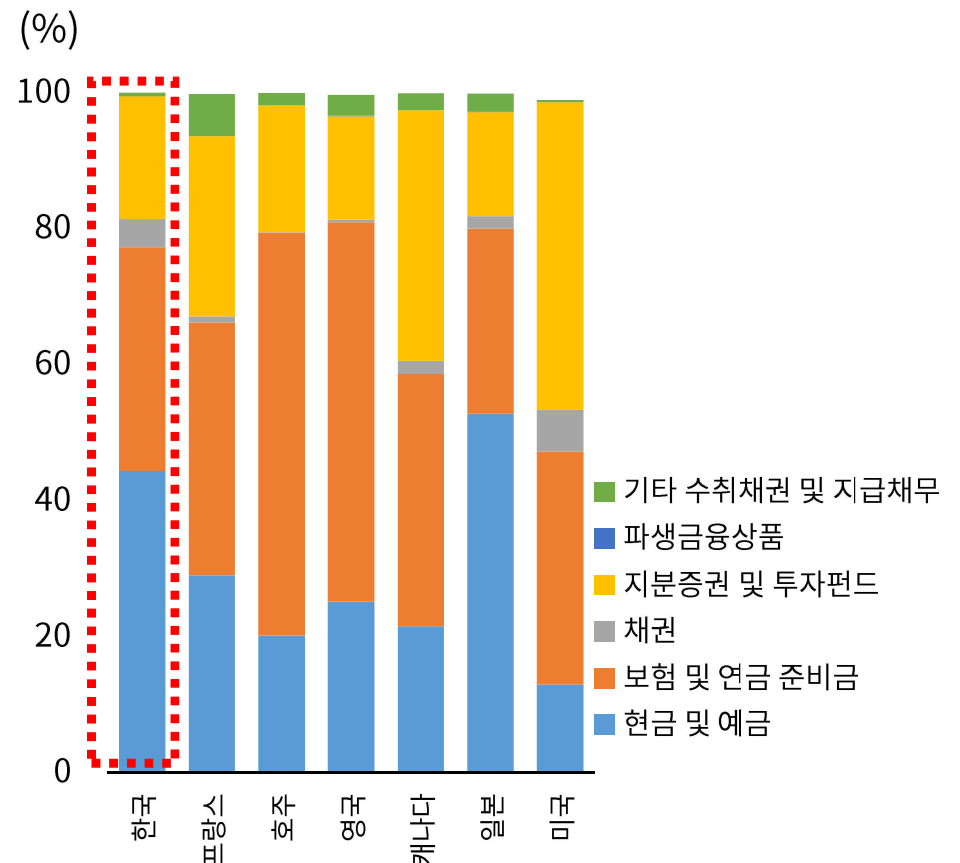
- 부동산자산 비중은 미국과 일본과 비교해 높은 비중을 차지함
- 금융자산은 현금 및 예금 비중이 높고, 일본과 유사한 형태를 나타냄

가계 자산 국제비교



자료: OECD, FRED

가계 금융자산 국제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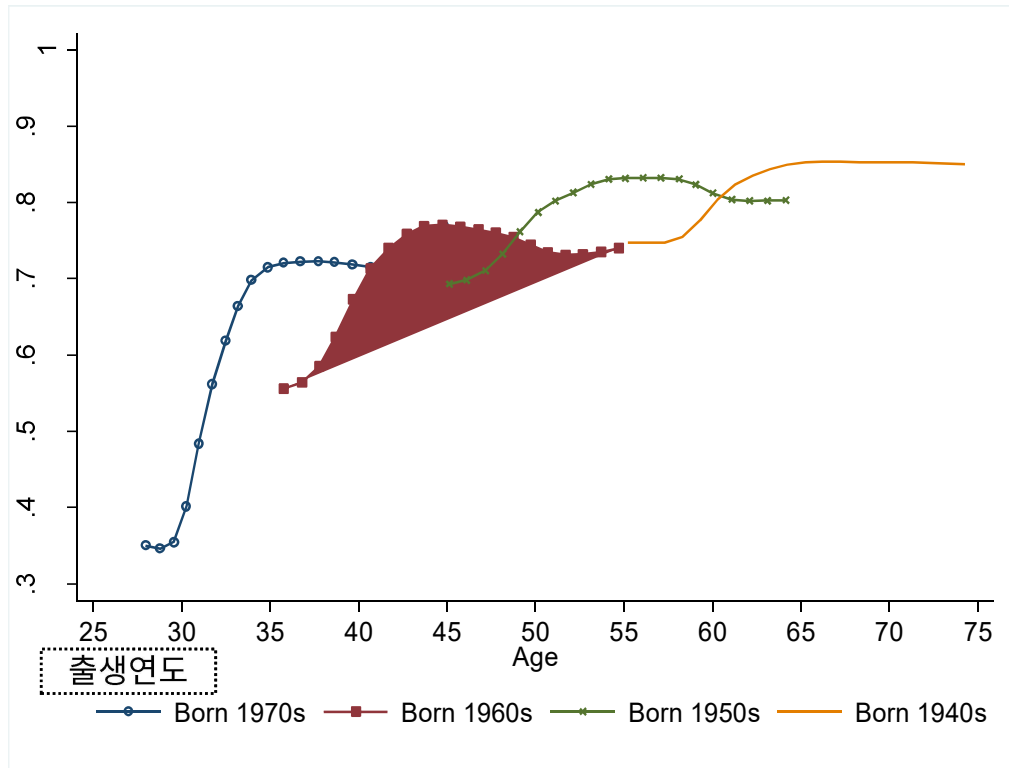


자료: OECD, FRED

(2) 생애주기에 따른 부동산자산 및 은행예금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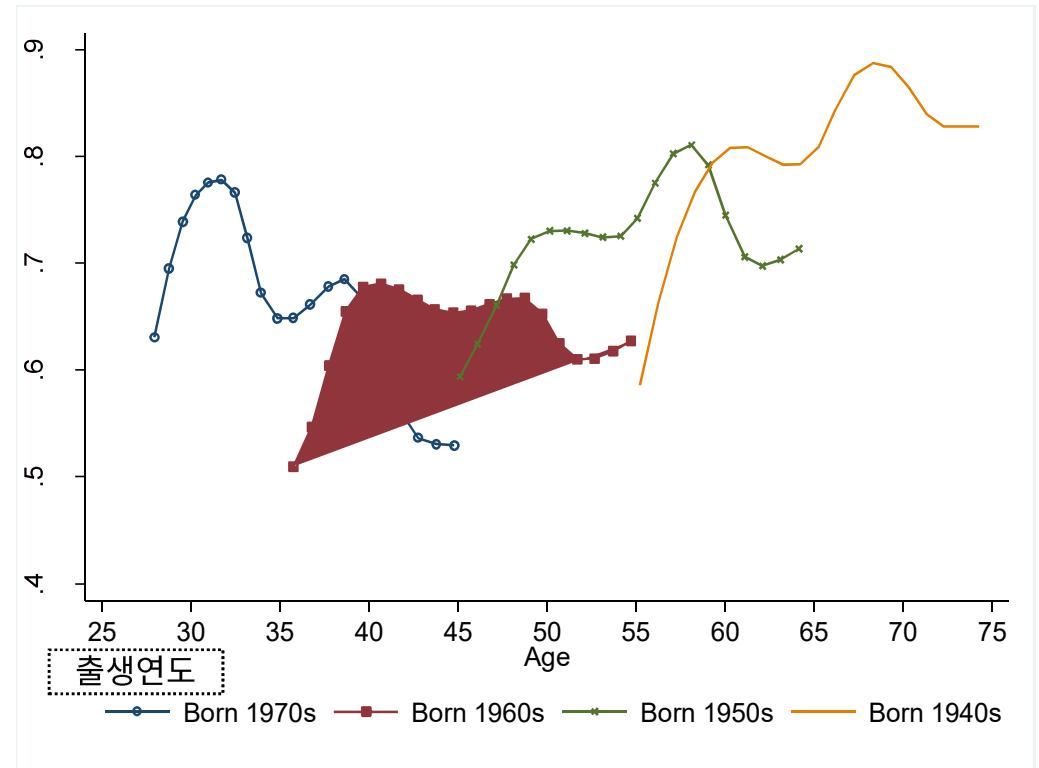
- 연령이 증가할 수록 부동산자산 증가, 역U자형을 보이는 미국과 일본과 다른 특징
- 은행예금 비중은 U자 형태를 보이며 30세와 고연령 단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함

생애주기에 따른 부동산자산 비중



자료: 노동패널조사

생애주기에 따른 은행예금 비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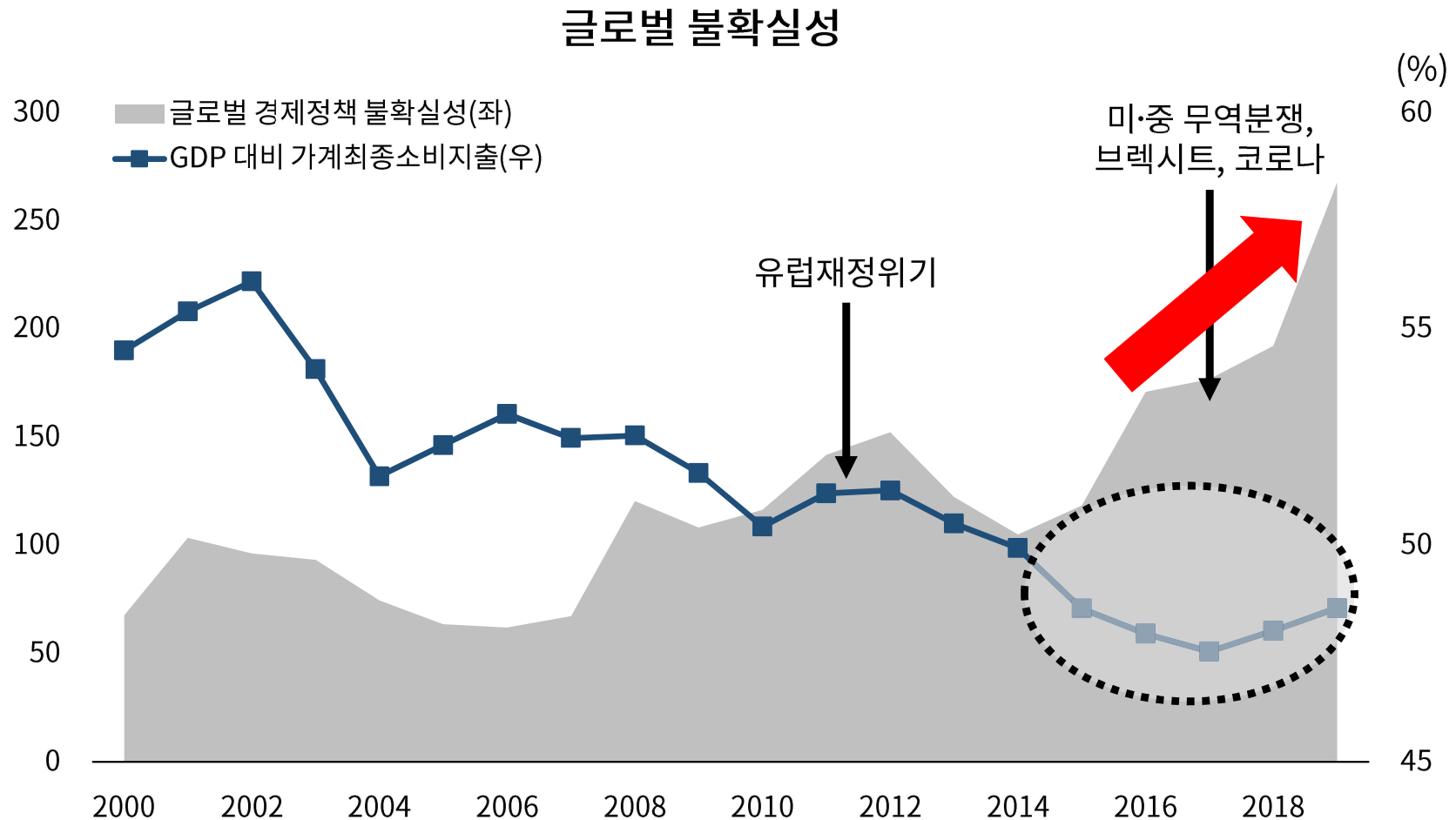
자료: 노동패널조사

2. 팬데믹과 가계: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

1. 불확실성 확대 및 소비 둔화

○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소비 둔화

› 유럽재정위기, 미·중 무역분쟁,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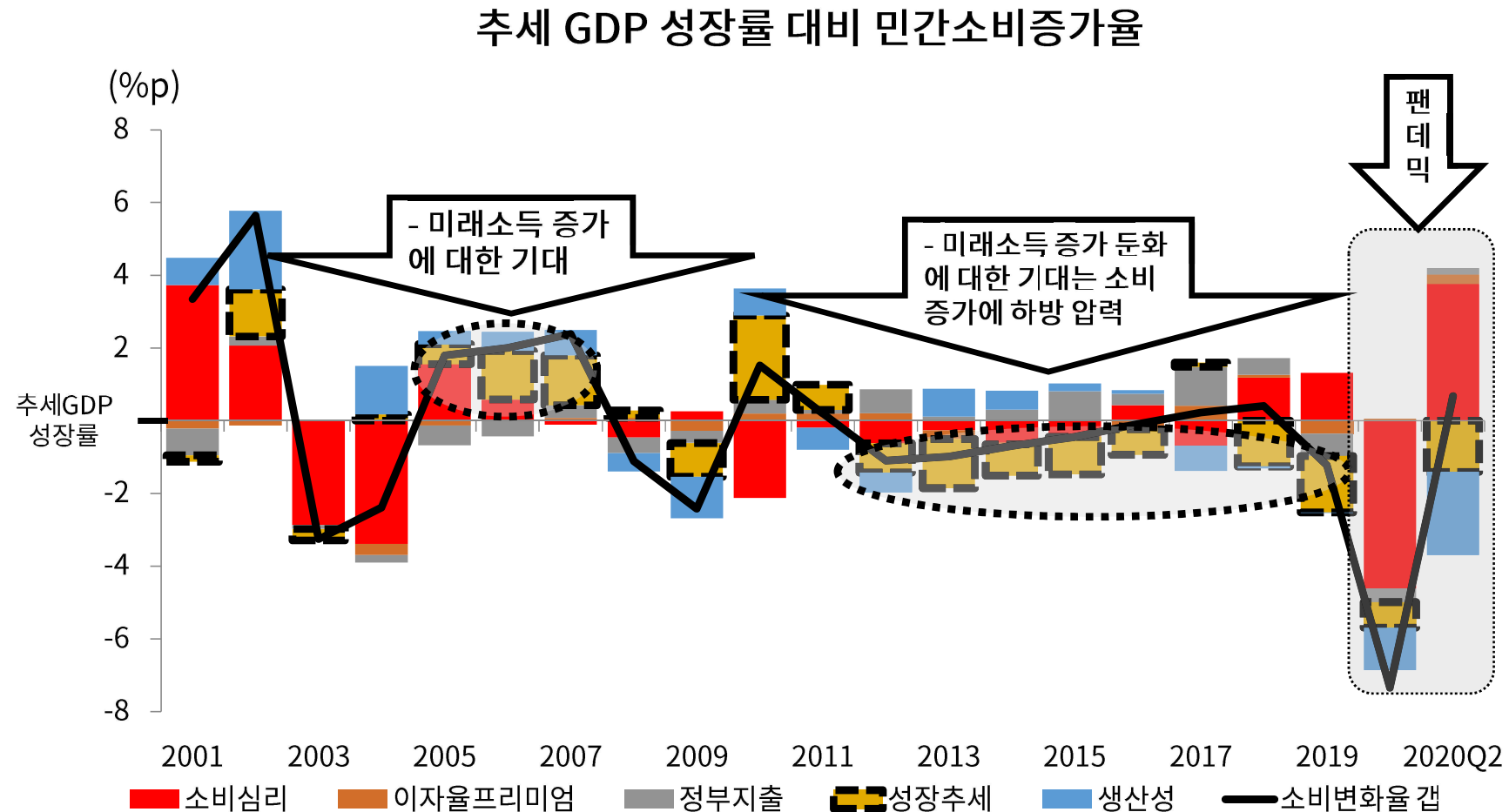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한국은행 ECOS, Bloom et. al.(2009)

(1) 금융위기 이후 성장추세 하락은 소비 둔화에 기여

○ 미래소득 감소 기대(성장추세 하락)에 따른 소비증가율 하락

▶ 팬데믹에 따른 소비심리(선호수요) 변화가 소비 증감에 크게 기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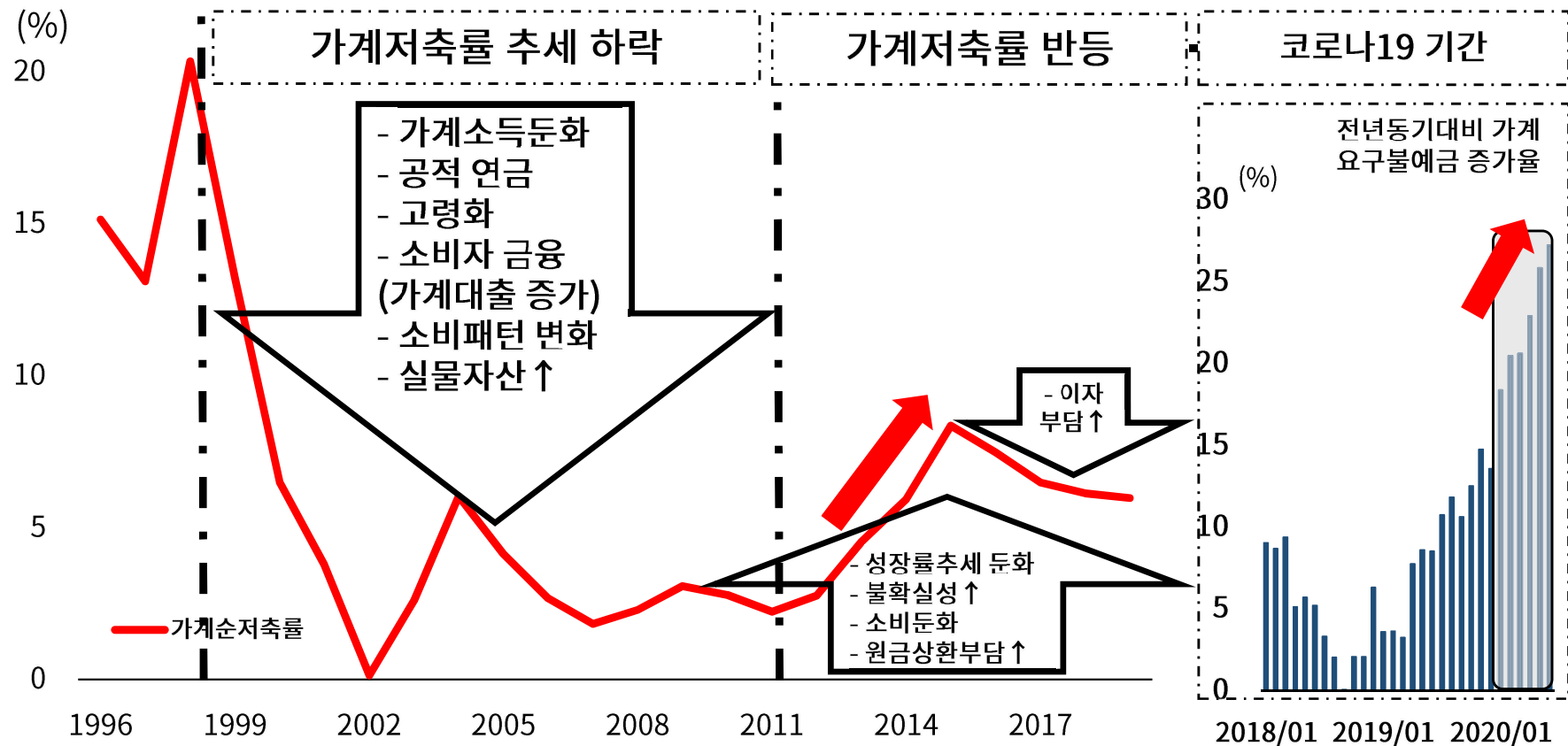


주 : Garcia-Cicco et. al.(2010)의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을 추정한 후 역사적 분해
자료: 한국은행 ECOS (GDP, 민간소비, 투자, 경상수지)

(2) 불확실성, 소비둔화에 따른 가계저축률 반등

가계저축률은 추세적 하락 국면과 반등 국면으로 구분

2011년 이후 저축률 회복 국면은 불확실성 및 소비둔화 반영



주 : 가계순저축률은 세금, 국민연금 보험료, 건강보험료, 대출이자, 경조사비, 종교단체 헌금 등 소비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가계 지출인 비소비지출을 고려한 처분가능소득 가운데 소비지출에 쓰고 남은 돈의 비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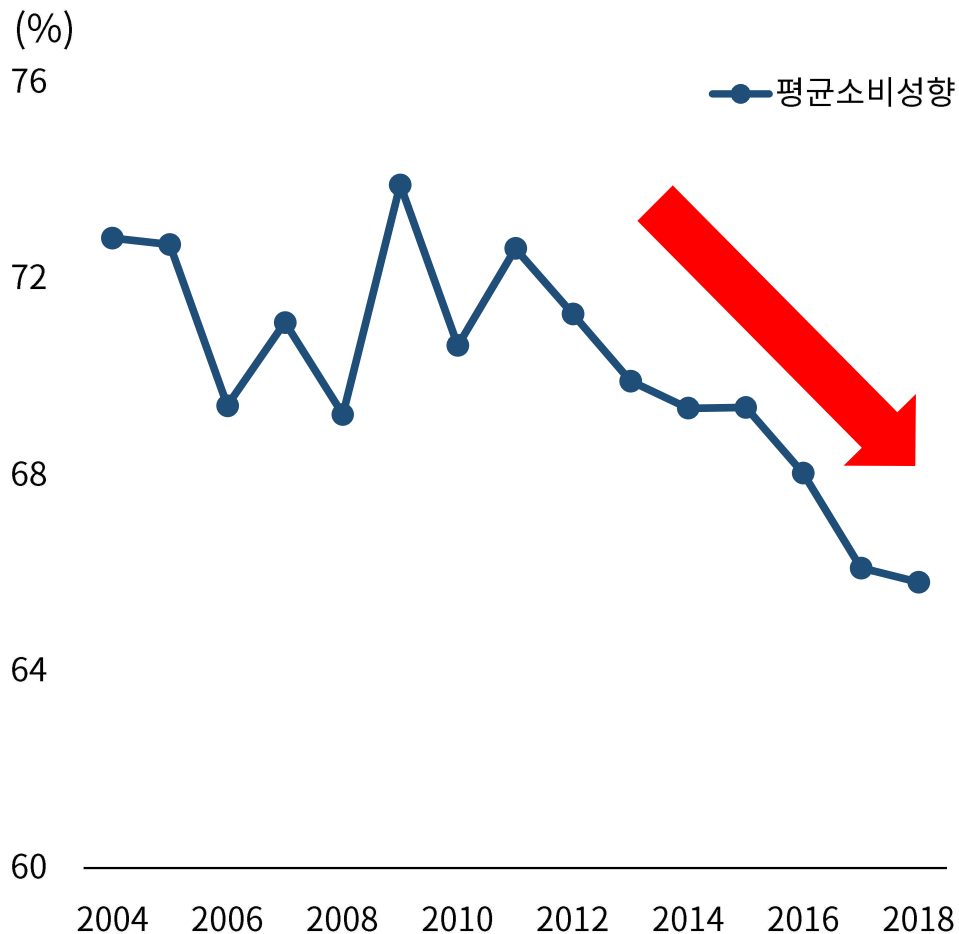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 ECOS

2. 가계의 소득증가에 대한 소비민감도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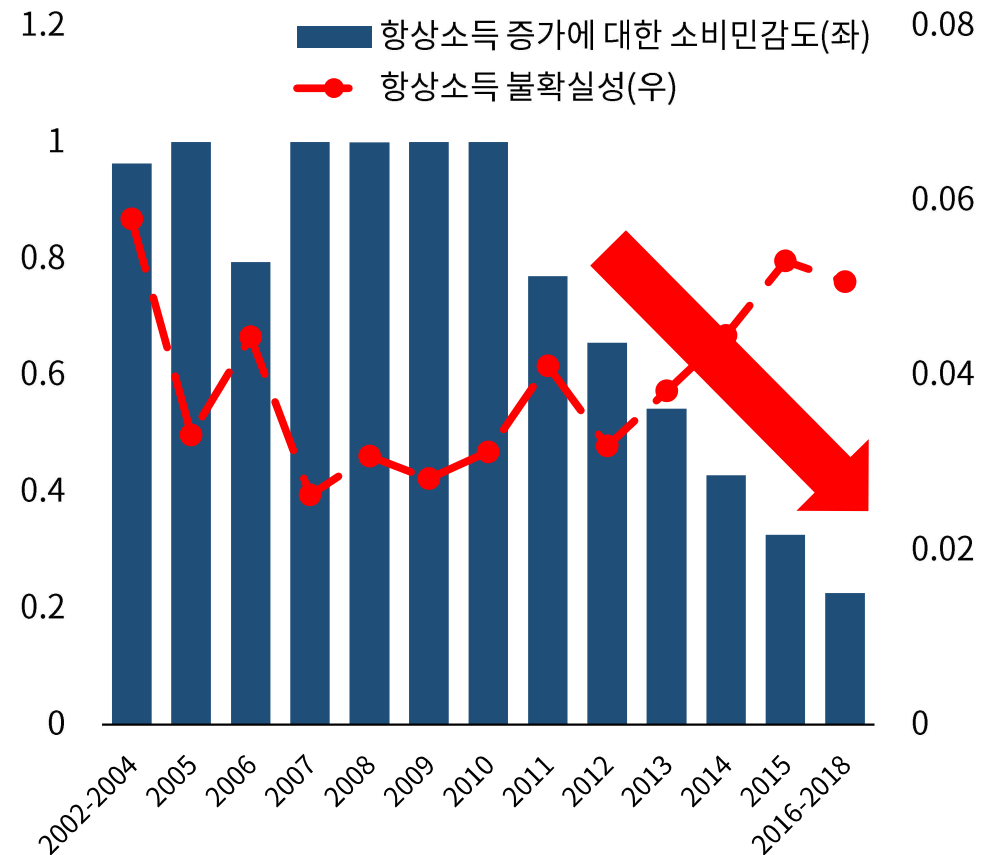
○ 금융위기 이후 평균소비성향은 지속적으로 감소

‣ 상승하는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소비는 상승하지 못하고, 소득 불확실성 확대

평균소비성향



항상소득 증가에 대한 소비민감도와 불확실성



주: Blundell et. al.(2008)을 적용하여 시간에 따른 항상소득 증가에 대한 소비민감도 및 불확실성 계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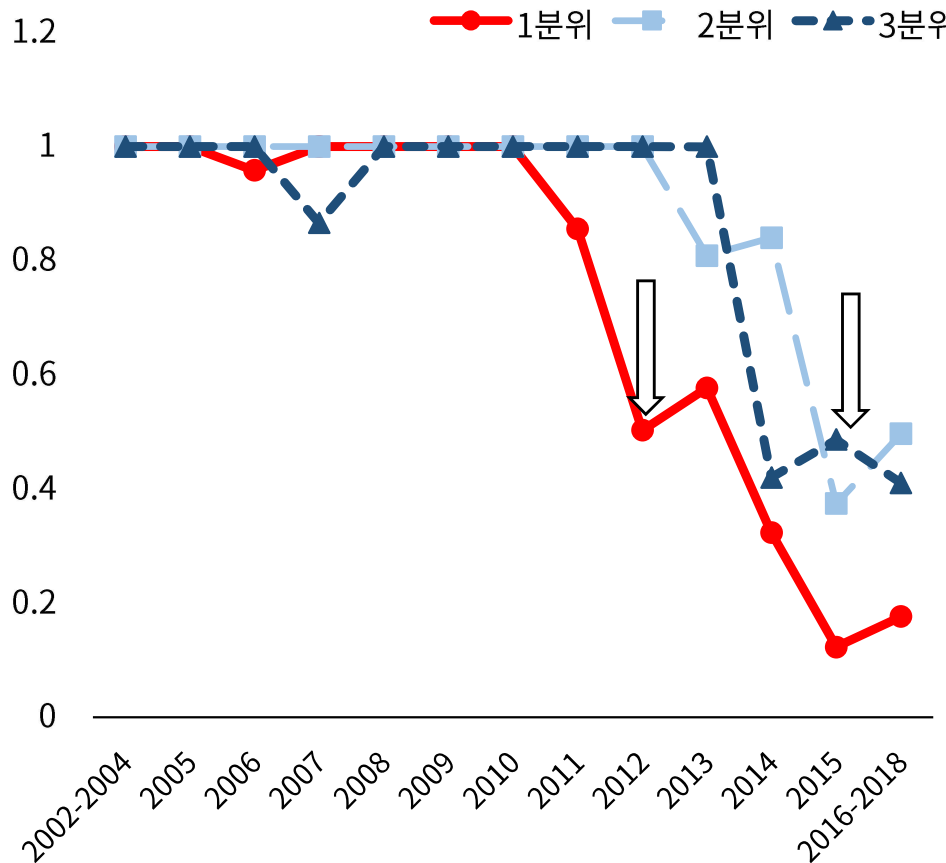
자료: 노동패널조사

자료: 노동패널조사

(1) 소득여력이 약한 가구를 중심으로 소비민감도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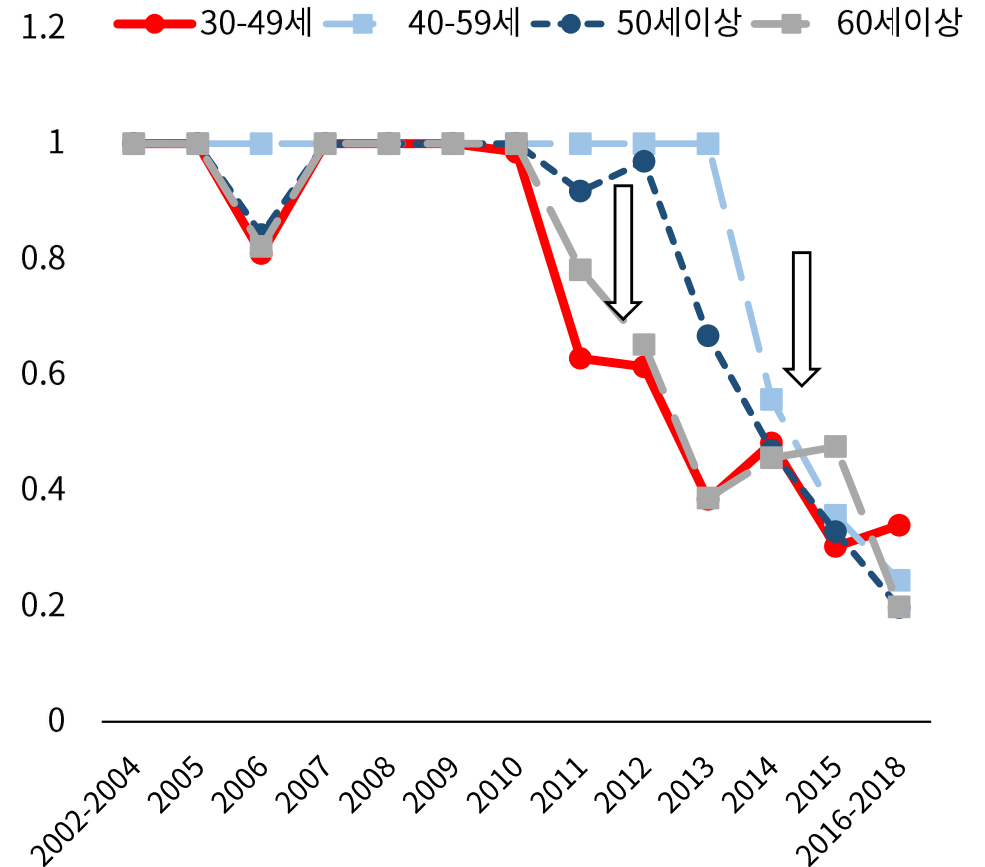
○ 소득1분위, 30대, 60세이상을 중심으로 소비민감도 감소가 큼

항상소득 증가에 대한 소비민감도



주: Blundell et. al.(2008)을 적용하여 시간에 따른 항상소득 증가에 대한 소비민감도 계산
자료: 노동패널조사

항상소득 증가에 대한 소비민감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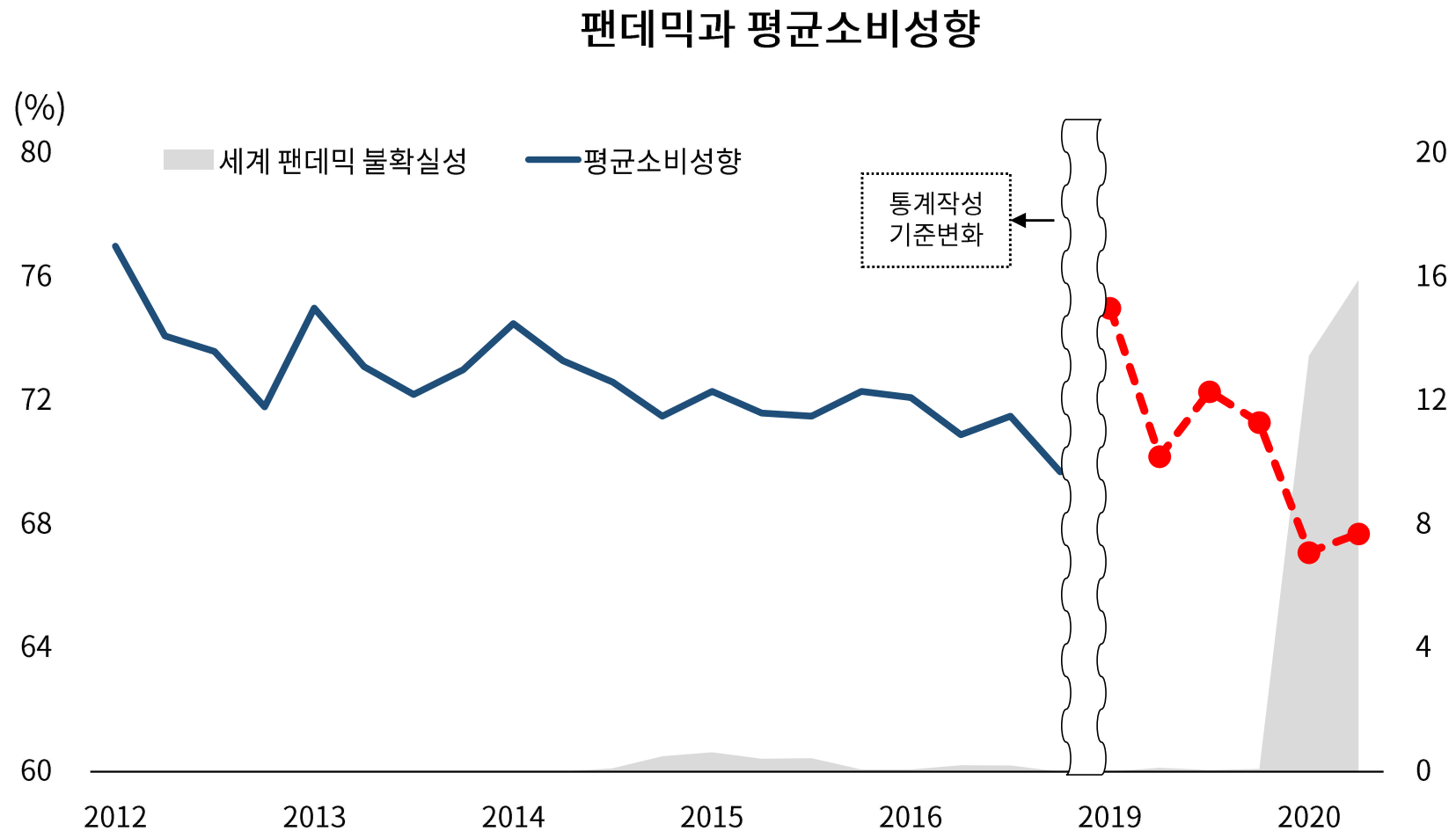


주: Blundell et. al.(2008)을 적용하여 시간에 따른 항상소득 증가에 대한 소비민감도 계산
자료: 노동패널조사

(2) 팬데믹으로 인한 가계 평균소비성향 하락

○ 코로나로 인한 세계 팬데믹 불확실성 증가와 평균소비성향 하락

›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불확실성은 사스와 메르스와는 다르게 높은 불확실성을 보여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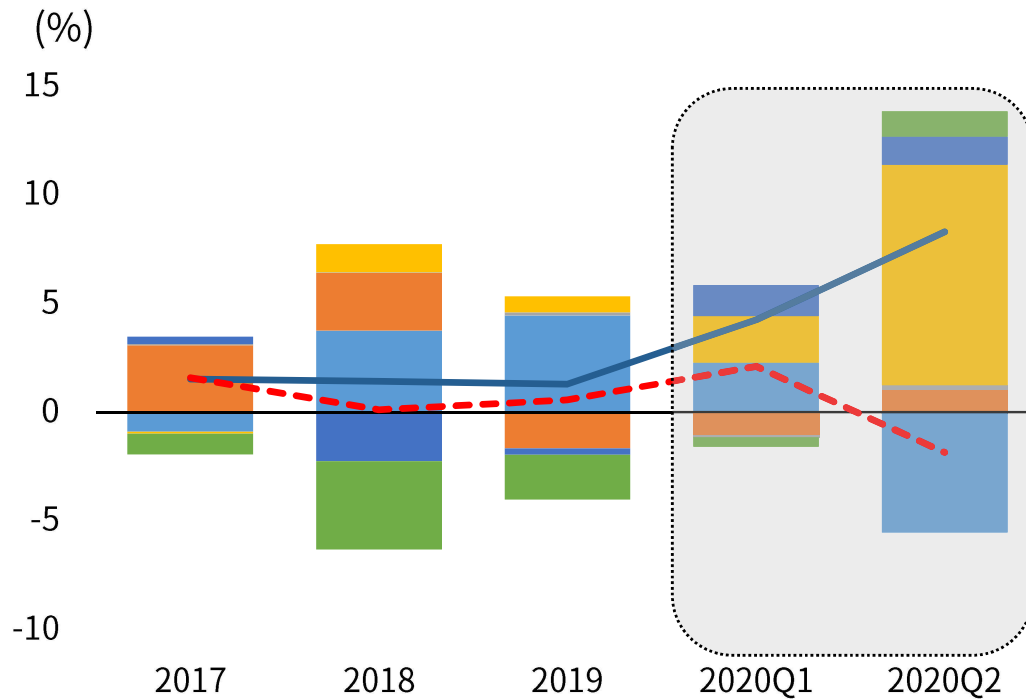


자료: 가계동향조사, IMF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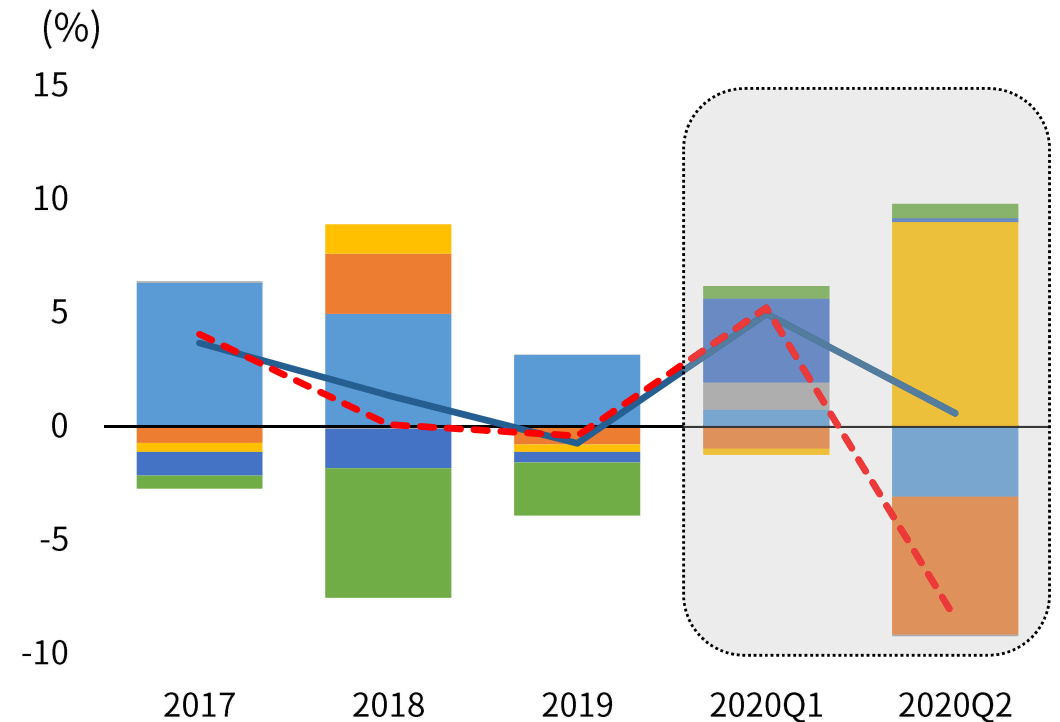
3. 팬데믹 여파로 인한 가계 임금소득, 사업소득 감소

○ 팬데믹 여파로 40대 임금소득, 50대 사업소득 큰 폭 감소

가계 처분가능소득 증감률 분해(40대)



가계 처분가능소득 증감률 분해(50대)



■ 임금소득
 ■ 재산소득
 ■ 비경상소득
 — 처분가능소득
 ■ 사업소득
 ■ 이전소득
 ■ 비소비지출
 - - - 처분가능소득(이전소득X)

■ 임금소득
 ■ 재산소득
 ■ 비경상소득
 — 처분가능소득
 ■ 사업소득
 ■ 이전소득
 ■ 비소비지출
 - - - 처분가능소득(이전소득X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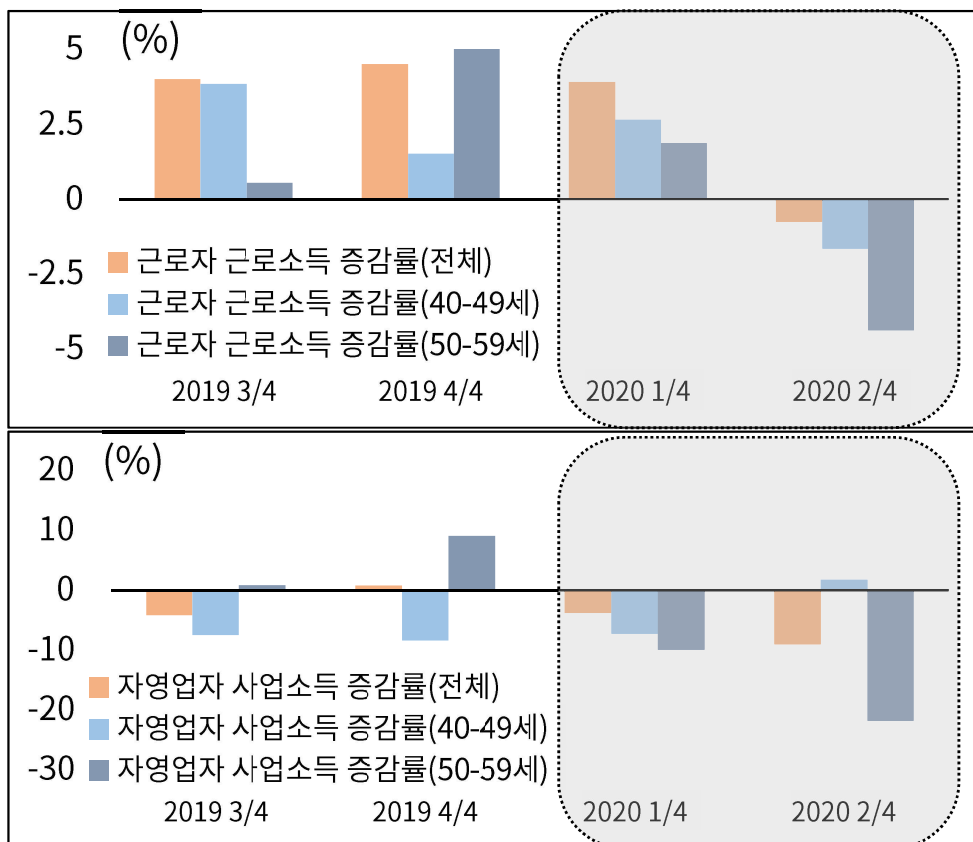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(가계동향조사,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(도시, 2인 이상))

팬데믹 여파에 자영업자 가구의 사업소득 취약

○ 자영업자 가구 사업소득에 대한 코로나 영향이 근로자가구 근로소득에 대한 영향보다 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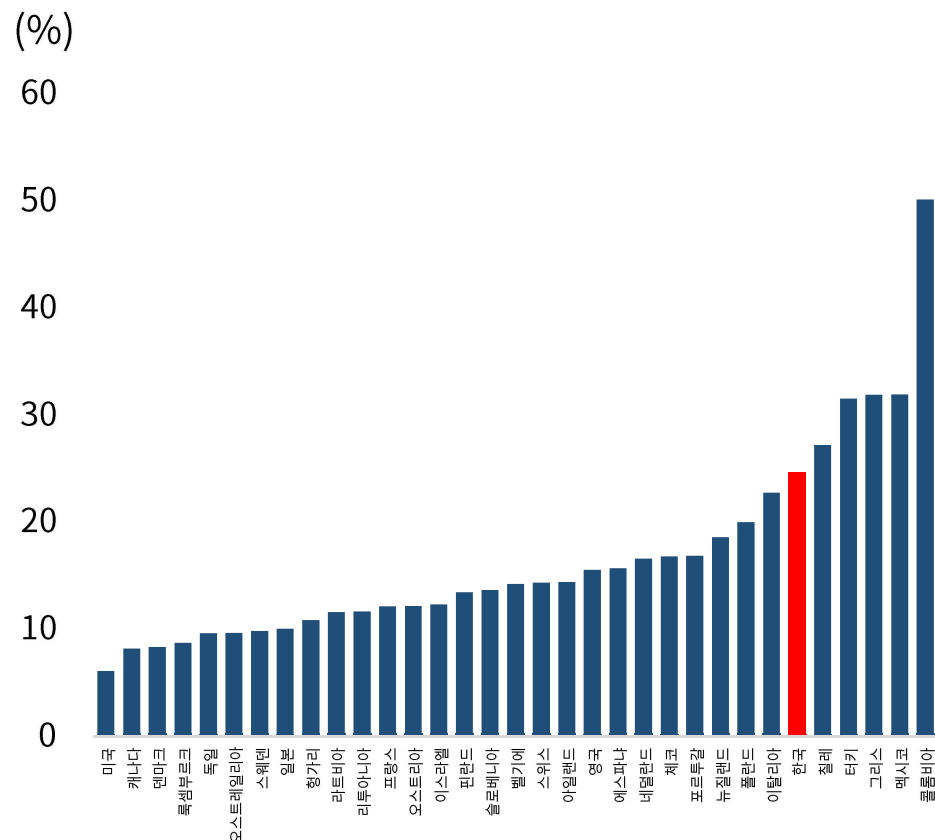
‣ OECD 국가 중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팬데믹 여파로 인한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감소가 국내 가게 가치분소득 하락에 큰 영향

전체 근로자(외) 가구 주요소득 증감률



자료: 통계청(가계동향조사)

자영업자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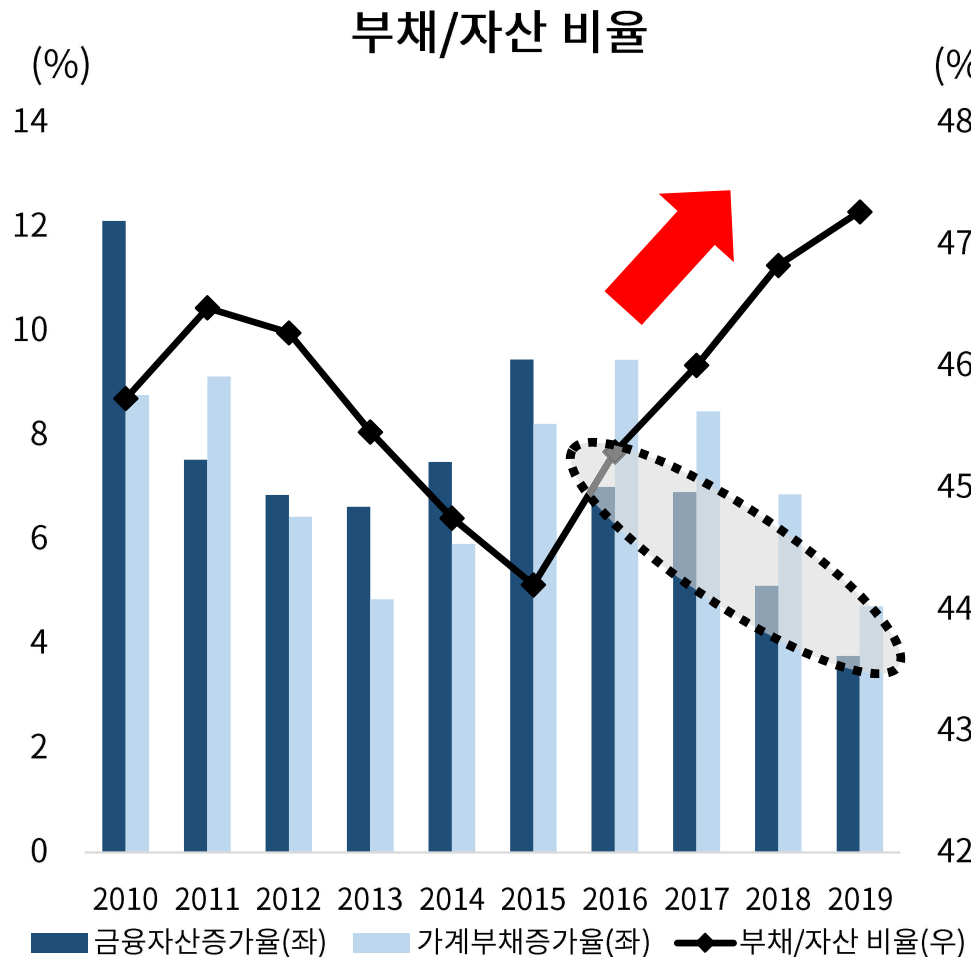


자료: OECD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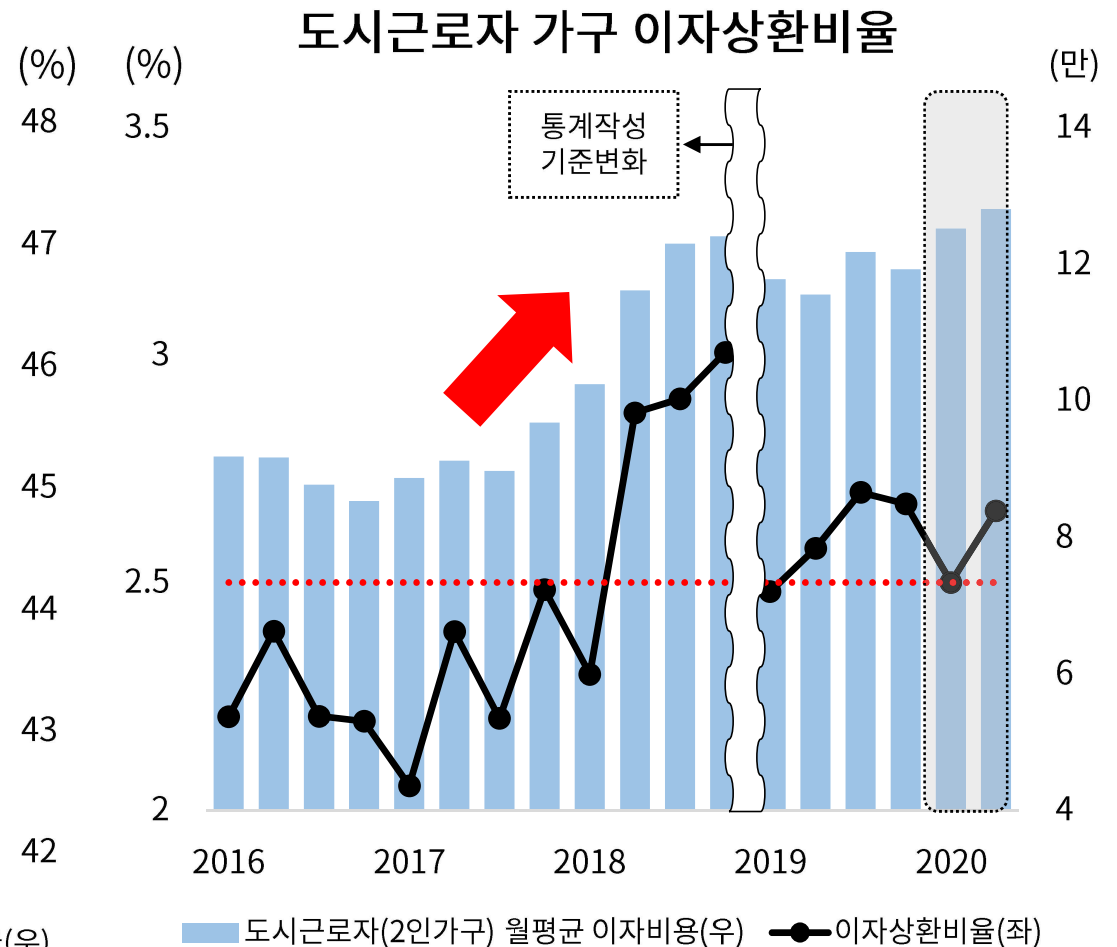
4. 가계부채부담 증가

○ 최근 자산 증가 속도보다 빠른 가계부채 증가

- ▶ 가계 금융자산의 증가속도 보다 빠른 가계부채 증가 및 이자부담 증가
- ▶ 코로나 여파로 인한 가계신용(주택담보대출, 기타대출) 증가는 이자상환비율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



자료: 한국은행 ECO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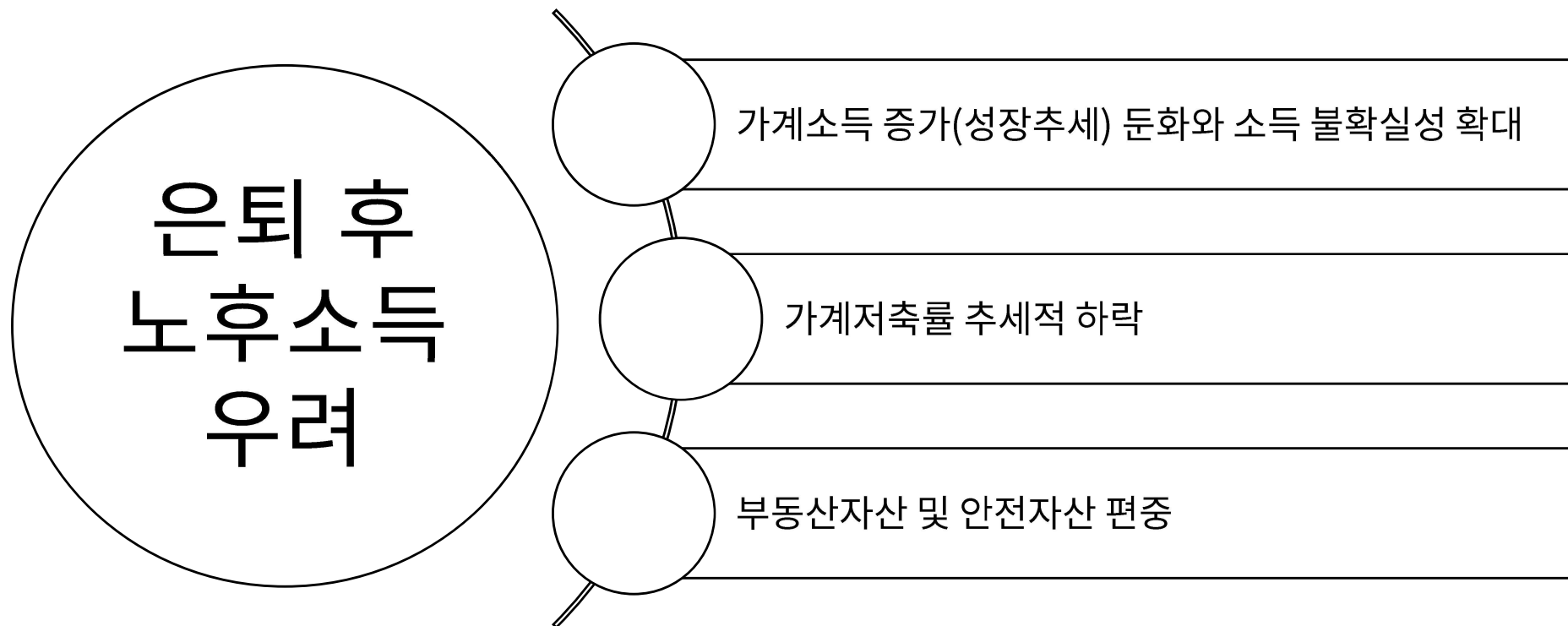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통계청(가계동향조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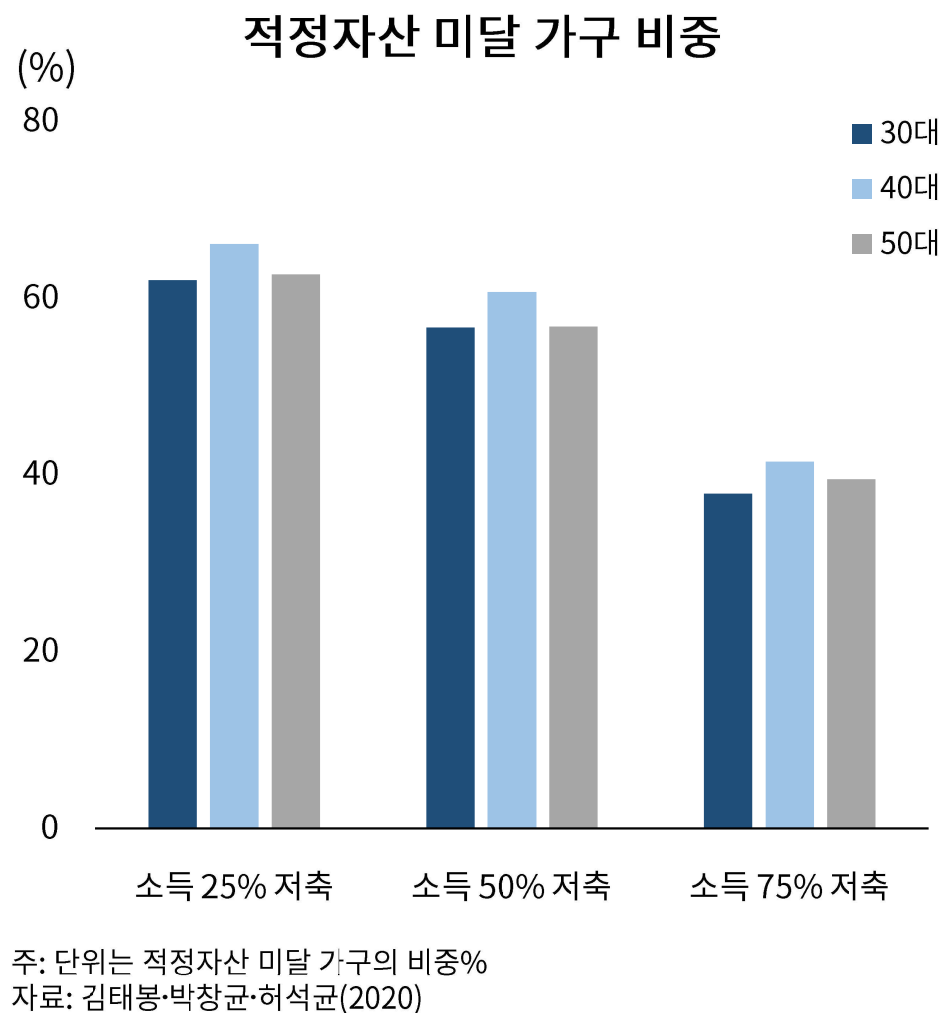
3. 요약 및 맺음말

가계부문 추세적 특징과 은퇴 후 노후소득에 대한 우려

- 가계소득 증가(성장추세) 둔화와 소득 불확실성 확대
- 가계저축률의 추세적 하락
- 가계 자산 중 부동산자산 및 안전자산 편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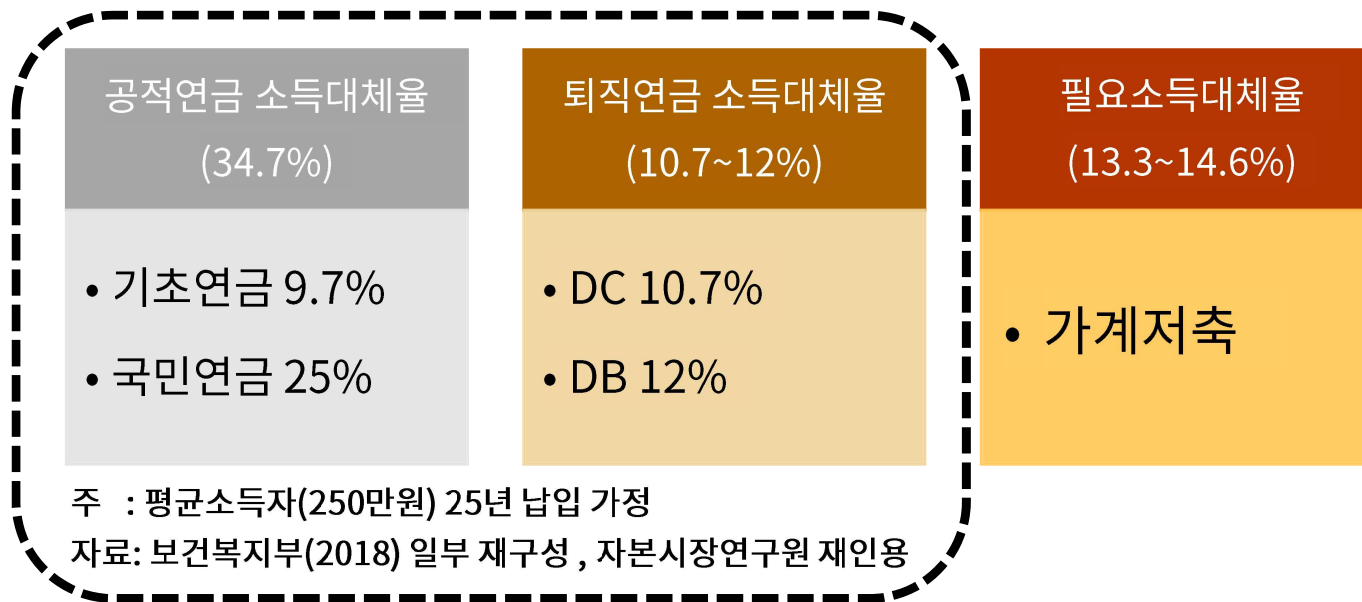
- 높은 수준의 65세이상 경제활동참가율과 노인빈곤률
- 청장년 가구 약 2/3가량이 은퇴 후 적정 현금흐름 확보에 어려움



은퇴 후 현금흐름 개선을 위한 가계저축 증대

- 평균소득자(250만원)의 목표 소득대체율을 60%(150만원, 1인 가구 적정노후소득)로 가정하고 25년간 납입 시,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목표대체율에 미치지 못함
- 은퇴 직전 고령층 가구 및 자영업자의 경우, 은퇴 후 현금흐름 취약

평균 임금근로자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소득대체율



은퇴 직전 고령층 가구, 자영업자의 경우? 은퇴 후 현금흐름 취약



감사합니다.